

옛터에 핀 들꽃들이 ‘그날’을 물어본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 ③ 강원도 고성 건봉사(乾鳳寺)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금강산 기슭에 불이문(不二門) 하나가 서있다. 건봉사다. ‘북쪽’이 멀지 않은 건봉사는 한국전쟁 당시 2년여 동안 국군 5, 8, 9사단 및 미군 제 10군단과 북한군 5개 사단이 16차례의 쫓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격전지였다. 그때 건봉사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토록 치열했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은 건 이 불이문뿐이다. 불이문 곳곳에서 서로 삶과 죽음을 물었던 흔적들이 그 시절을 증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시 멈춘 시간 속에 서있는 불이문의 현판이 묻는 듯하다. ‘불이’의 뜻은.

분단의 슬픔 아는 도랑

불이문을 지나면 개울 위로 능파교가 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개울물이 건봉사를 적시며 내려간다. 능파교를 건너기 전 왼편으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사라진 가람의 옛터가 있다. 범종소리와 풍경소리 대신 종성과 포성에 웅크렸을 가람의 표정이 쓸쓸한 허공을 채우고 있고, 전각이 사라진 기단 위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그날을 묻고 있다. 극락전이 사라진 이야기, 낙서암이 사라진 이야기.

능파교 건너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능파교를 건너면 봉서루다. 봉서루 앞 대석단 좌우로 심바라밀석주가 서있다. 봉서루를 지나면 마당이 보이고 대웅전, 명부전 등이 있다. 건봉사 명부전에는 1250명의 호국영령 영가가 모셔져 있다. 건봉사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위령재를 모신다. 능파교를 다시 건너 산 쪽으로 오르면 적멸보궁이다. 부처님 치아 사리 3과가 모셔져 있다.

건봉사는

1950년 5월 10일, 폭격으로 인해 건봉사 대웅전이 소실됐고, 건봉사가 소장하고 있던 국보 제 412호 (마지금니화경) 전 46권이 소실됐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민통선 이북에 자리한 건봉사는 출입이 통제됐고, 도량엔 군이 주둔했다. 그러다

1989년 1월 20일부터 민통선이 완화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졌고, 1987년부터 국가 차원의 복원 불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불렸던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년)에 아도 화상이 원각사를 창건해 시작했다. 이어서 533년(법흥왕 20)에 보립암과 반야암이 창건되었다. 758년(경덕왕 17)에 발징 화상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열불만일회를 중창했다. 열불만일회란 열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 아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를 말한다. 이때 발징 화상이 정신, 양순, 등 31명의 대중과 함께 열불을 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신도 1,820명이 동참했다. 이것이 열불만일회의 효시가 됐다.

810년(현덕왕 2)에는 당나라 현수 법사로 부터 경교를 배우고 돌아온 승전 화상이 화엄경을 강설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어 937년(고려 태조 20)에 도선 국사가 왕명을 받들어 941년(태조 24)에 원각사를 중수하고 서봉사(西鳳寺)라 했으며, 고려 말엽 나옹 화상이 중수하고 건봉사라 했다.

1465년 세조가 건봉사에 다섯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건봉사를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뒤, 어실각을 짓고 전담과 친필 동참문을 하사했다고 전한다. 이로써 건봉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605년(선조 38)에는 사명대사가 일본이 약탈해 간 통도사의 부처님 사리를 되찾아와 건봉사에도 모셨다.

1878년(고종 15) 4월 3일 산불로 인해 사찰과 암자 3천 칸이 모두 불에 탔다. 학림 화상이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 할도 등을 구해냈지만 나머지 담우와 집기 등은 모두 소실됐다. 그 후 여러 차례 복원 불사를 통해 1911년 9개 말사를 거느린 31본산의 하나가 됐다. 한국전쟁으로 다시 소실됐고 다시 복원 불사가 진행 중이다.

호국사찰, 불보사찰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일으키고 기른 도량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승군의 본



‘북쪽’이 멀지 않은 건봉사는 한국전쟁 당시 2년여 동안 국군 5, 8, 9사단 및 미군 제 10군단과 북한군 5개 사단이 16차례의 쫓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격전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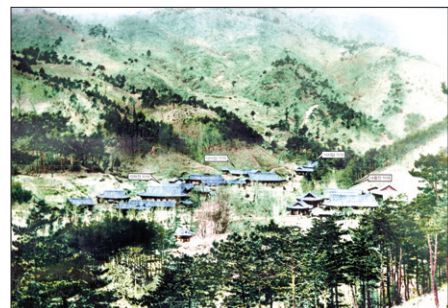
거지가 됐다. 건봉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호국불교 도량으로 꼽는 이유다. 사명대사가 건봉사를 의승군의 근거지로 삼은 것은 건봉사가 당시 7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최대의 규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봉사에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다. 1605년에 사명 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진왜란 때 빼앗겼던 부처님의 치아와 부처님의 사리를 되찾아온다. 그리고 원 봉안처인 통도사뿐만 아니라 건봉사에도 일부를 나누어 모시게 된 것이다. 이는 일찍이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모시고 돌아와 통도사를 비롯한 지금의 5대 적멸보궁에 모셨던 것을 예군이 약탈해 간 것이다. 현재 건봉사는 적멸보궁 사리탑에 부처님 치아사리 3과를 모시고 있고, 법당에 친견용으로 5과를 모시고 있다.

글 · 사진=박재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국전쟁때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불이문



1920년대 건봉사 모습



1989년 1월 20일 민간인 출입허용 기념식

주변보기

<사찰>

▲극락암 /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033-681-2095

건봉사에서 서북쪽으로 2km 지점에 있었으며, 945년(고려 혜종 2년) 창건됐다. 1878년 산불로 인해 건봉사와 함께 소실되었으나 다음 해에 중건됐다. 법신 스님이 1956년 간성면 관산3리에 극락암을 신축하였다가 1962년 현재의 간성읍 교동리 280번지 함박동으로 이전하여 오늘 날의 극락암이 되었다.

▲화암사 /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033-633-1525

신라 혜공왕(서기 769년)때 창건됐다. 창건 이후 5차례의 화재로 설법전 한 동만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 이후 널리 알려지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사찰내에 전통찻집이 있어 조용한 산사에서 전통차를 즐길 수 있다.

<가볼 만한 곳>

• 왕곡마을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 보존회 033-631-2120
전통 한옥마을이다. 양근 함씨와 강릉



최씨, 용곡 김씨의 집성촌으로 고려말 두문동 72인 중 함부열이 조선왕국의 건국에 반대하여 간성에 은거한데서 연유한다. 임진왜란으로 폐허화된 이래 150년에 걸쳐 형성됐다. 19세기를 전후하여 건축된 북방식 전통가옥들이 군락을 이루어 원형대로 보존되어 왔다. 왕곡마을 전체 가옥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35호이며, 보존회에서는 전통한옥속박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송지호 /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둘레 약4km(약 20만 평)의 호수 송지호는 겨울철새인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의 도래지이며, 물빛이 청명하고 수심이 일정해 도미와 전어 등 바닷고기와 잉어 같은 민물고기가 함께 살고 있다. 종합관광레저타운으로 새롭게 변모한 송지호는 주변에 송지호해수욕장과 왕곡마을, 오토캠핑장, 해양심층수단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 가족단위 테마체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하늬라벤더팜(라벤더 체험마을 내) /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 033-681-0005
라벤더마을로 최근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고성군 간성읍 어천3리에 위치한 라벤더 농장이다. 라벤더마을은 2007년 ‘라벤더향수테마마을’로 지정됐고, 2008년부터 하늬라벤더팜에서는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세계의 라벤더팜 사진 및 라벤더 정보전시회, 라벤더와 양귀비를 소재로 한 허브 수채화전, 포토 콘테스트, 오일추출 시연회, 라벤더 수확체험,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다.



<숙박>

설악번벨리조트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033-638-5362
코레스코-삼포콘도미니엄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033-631-3811
(식당)
건봉식당 033-681-5831 보리밥, 청국장, 막국수
교동막국수 033-681-3307 쌀밥, 추어탕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 49재 영가천도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암으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총무부장 정무(부산 해운대구 청운암)
재무부장 무여(부산 금정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부산 진구 수도암)
교육부장 묘향(부산 수영 반야라마)
감사부장 청타(부산 수영 관음사)
문화부장 청오(대구 달서구 흥주암)

총무원장 유 심

원로원장 대웅(부산 진구 봉주암)
무진(경주 황룡 용수암)
비구니회장 혜명(부산 진구 백광사)
비구니총무 무여(011-9509-1560)
불교전통문화원장 소현 무향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포교단장 덕인
포교단총무 법광(무량정사)

총회의장 일봉(경주 강동 관음사)
포교원장 윤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부산 강서구 약수사)
교육원장 봉덕(거창읍 봉덕암)
호법원장 법산(011-3011-0853)
총회사무처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총회의원 일월(경주 안강 상원사)
도경, 수경, 범주, 진여, 진설, 덕행

전국 각 교구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교구) 051-468-5657
서울교구원장 법안(강북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윤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017-551-5143)
거창교구원장 봉덕(봉덕암 010-8582-1309)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의광(대구 서구 약수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사천 향촌동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부산 금정구 천왕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010-2531-1961)
포항교구원장 수연(포항 해동동 천왕사 010-8988-9672)
양산교구원장 무천(양산 중부동 천궁사 010-2445-0160)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 심

공 동 봉 행 위 원 장 혜명, 수연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관음정사 (부산역) 총무국 : 051)468-5657 / 사무장 010-4566-4504 총무원 051)442-5658 인터넷주소 http://jogyejong.kr 팩스 051)442-5659

입 증 업 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 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정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행전자 (불교음향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끼개,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